



소변검사 실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신장병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검사는 신장의 이상과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없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결석하지 않고 이번 소변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검사 일시 : **2022. 5. 31.(화) 12:00부터 시작**
2. 검사 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3. 검사 비용 : 무료
4. 검사 기관 : 학교보건협회 전북지부에서 병리검사요원이 출장 방문

◆ 소변검사 시 검사항목

- **단백** : 신장질환을 발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법입니다.
- **잠혈** : 혈뇨는 전신성의 출혈, 신장종양, 비뇨기계의 종양, 염증, 이물 등을 조기 진단 할 수 있습니다.
- **요당** : 소아당뇨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pH** : 요로감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소변검사의 중요성

☞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힘듭니다.

만성신장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가 필수입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적혈구 생산의 조절과 골 형성, 혈압은 물론 전해질 및 수분의 조절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 자각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만성신장염은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쇠약, 빈혈, 다뇨증 등의 자각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를 찾을 때는 신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약물 요법이나 식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투석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신부전은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치료 외에 약물요법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기타 보조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

1. 채뇨하기 전날 잠자기 전 소변을 보세요!

- ☞ 자기 전 배뇨를 하지 않는 경우 기립성 단백뇨(체위성 단백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 기립성 단백뇨(체위성 단백뇨)는 정상인에서 오래 서 있거나 운동 후, 목욕 후 또는 발열 시 나올 수 있다.

2. 검사 전일 지나친 채식이나 비타민C 섭취를 제한하세요!

- ☞ 신선한 정상인의 소변은 약산성이거나 중성이나 지나친 채식과 비타민C 섭취로 인해 소변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다.

3. 생리중인 여학생은 검사요원에게 알려주세요!

- ☞ 잠혈 반응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검사 전 영양제 및 약물 복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검사요원에게 알려주세요!

2022. 5. 23.

산 서 중 고 등 학 교 장